광주 남구, '쓰레기 산더미' 주택 34곳 정비한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정비 모습 /광주 남구청 제공

저장 강박 의심가구 실태조사 마무리

주거환경 개선부터 맞춤형 복지 연계까지 통합 지원 강화

광주 남구가 저장 강박 증세로 생활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된 의심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복지 지원에 나선다.

남구는 21일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 등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저장 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면서 "올해 새롭게 4세대를 발굴해 총 34세대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거지 내부 및 주변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이 과도하게 적치돼 위생 문제와 화재 위험, 악취 민원 등이 우려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구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저장 강박 의심가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3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하는 34세대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가구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이거나 중장년 은둔형 세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20~30대 청년층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우선 긴급 정비가 필요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청소와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구비 1,580만원을 투입해 저장 강박 의심가구 4세대를 일제히 정비할 방침이다.

남구는 저장 강박 문제를 단순 청소 지원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은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청은 대상 가구별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또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는 긴급 복지와 돌봄 서비스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남구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악취와 해충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환경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관 기자

광주 서구, 23일 청소년 위한 '더 빛날 데이' 개최

청소년의 날 맞아 문화축제 개최

동아리 공연·디제잉 파티 풍성

광주광역시 서구는 '제3회 서구 청소년의 날'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2시 서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기념행사 '더 빛날 데이(The 빛날 Day)'를 개최한다.

서구는 2024년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서구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다만 올해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정으로 인해 기념행사를 일주일 앞당겨 진행한다.

행사는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청소년 동아리 공연 ▲디제잉 파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 청소년 동아리 11개 팀이 밴드와 댄스, 난타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청소년이 직접 사회자로 참여해 행사 진행을 함께하며 청소년 주도형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여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디제잉 파티를 마련해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현숙 행복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관객이 아닌 주인공으로 참여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관심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업 중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공연 프로그램 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과 소통 공간이 함께 운영돼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직접 무대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며 또래 간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서구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행사 참여자를 넘어 지역사회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청소년 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활동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들의 공연과 활동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역시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23일 청소년 위한 '더 빛날 데이' 포스터 /광주 서구청 제공